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라더니...보상은 '기대이하'

피해율 20% 못 미치면 퇴짜...농가 "가입 하나마나" 불만 고조

정부가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농가들은 엄격한 보상기준으로 인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가입할 이유가 없다며 태풍피해에 따른 충분한 피해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태풍 불라벤과 덴빈이 잇따라 한반도를 강습하면서 농작물과 시설하우스 등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들은 충분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해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NH농협손해보험 농업정책보험본부 관계자는 "자기부담금비율제도는 자부담 비율에 따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등의 취지로 대부분의 보험상품이 자기부담비율을 20% 또는 30%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WTO 협정에서 자연재해 보조금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 평년 생산량의 30%를 초과하는 생산 손실이 발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자기부담비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농가들은 농협이 수확기 이후 피해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피해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A씨는 "도복피해를 입을 경우 나중에 수확기에 수확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피해는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농어민신문 9.10>

"농업, 6차 산업으로 확장...첨단기술 접목"

김연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9월 6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농산업경쟁력, 재점검한다' 심층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농업의 범위 확장을 통한 소득증대를 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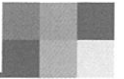
▲ 경쟁력 제고 방향=김 연구위원은 "농업의 경쟁력은 1차 생산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농업의 범위를 1차 산업뿐 아니라 '1차+2차+3차=6차 산업'으로 확대해야하며 더 나가 +a까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즉, 농업생산물이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기술)과 GT(녹색기술)이 융합돼야 한다"는 것.

▲ 경쟁력 제고 세부추진 방안=신성장동력 산업의 특징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모든 부처에 걸쳐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신성장동력산업에서 어떤 부문을 담당해야 할지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또 IT산업은 지식경제부에서 7개 분야(해운, 항만, 농업, 교통 등)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 IT부문의 아이টে을 찾아 사업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농업 IT융합지원센터가 설립됐고 농정원에서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IT를 이용해 생산, 가공, 유통업체에게 IT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동시에 식물공장은 IT-BT가 결합된 기술로 향후 발전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식물공장에 대한 법제정과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 경영체 육성과 농업IT 확대=조가옥 전북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농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주요



곡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확보를 위해 먹거리 생산 주체(조직체와 경영체)를 육성해야 한다”며 “특히 경영규모 확대 정책으로 쌀 부문에서 들녘 경영체 육성이 필요하며 들녘 경영체 지원사업이 비용절감과 수익창출, 노동비절감, 시장교섭력 등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현 순천대 교수도 “농업 부문에 이용되는 IT는 농업생산·물류·식품·판매·소비·검역·농어촌복지·관광·농촌문화까지 접목된다”고 분석했다.

〈자료: 농어민신문 9.10〉

도시여 안녕...귀농·귀촌 급증 올 상반기 8,700가구, 연말 2만가구 넘을듯...40~50대 절반 넘어

도시 생활을 접고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 상반기 귀농·귀촌 가구가 8,706가구로 지난해 전체(1만 503가구)에 육박했다고 10일 밝혔다. 귀농·귀촌 가구는 2004년 1,000가구를 넘어선 뒤 완만하게 늘다가 2009년 4,080가구에 이어 지난해 1만가구를 돌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데다 도시 일자리 부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올 연말에는 2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사를 짓고자 귀농한 가구는 4,678가구(53.7%), 농촌에 살기 위해 귀촌한 가구는 4,028가구(46.3%)로 엇비슷했다. 귀농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귀촌가구는 충북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2%, 40대가 24.4%를 차지하는 등 농업기술을 습득해 생산활동에 나설 수 있는 60세 미만의 가구주가 75%에 달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24.6%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18.5%)과 생산직(10.8%)이 뒤를 이었다. 귀농 후 선택한 작목은 경종(35.5%)·과수(9%)·시설원예(6.3%)·축산(2.7%) 순이었다.

〈자료: 농민신문 9.12〉

휴대폰으로 시설재배 물 관리 척척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을 이용해 시설재배지의 물 관리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는 10일 시설재배지에서 토양과 작물 특성에 맞춰 무선통신을 이용해 원격으로 물을 공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IT이용 시설재배지 자동관개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관개시스템은 시설규모, 작물상태, 토양 종류 등에 따라 관수시점, 관수량 등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토양수분감응 컨트롤러를 통해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의 물을 알맞은 때에 공급할 수 있다.

특히 이 컨트롤러를 무선통신과 연결해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원격으로 물을 공급하고 관리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관개 시스템보다 정밀한 물 공급·관리가 가능하고, 이상기상 등의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며 농업인들의 시·공간적 여유가 생겼다.

이와 함께 자동관수는 물론 물 소요량과 전력 소요량, 토양·수분환경 변화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작물의 생산성 제고와 에너지 절약 및 물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수동 관개시스템보다 물 소요량은 10~20% 정도, 전력 소요량은 5~10% 정도 절약된다.

〈자료: 농어민신문 9.13〉

태풍 이어 해파리떼까지...어업인 '애간장'

연이은 태풍으로 전남 지역 전북 양식장이 초토화된 이후 해파리라는 불청객이 또 다시 확산되면서 어업인들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1일 오전 10시를 기해 경남에서 경북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보를 추가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9일 전남 신안군 인근 해역과 8월 6일 전북 연근해의 경계경보에 이어

동해남부 해역까지 해파리 주의보가 추가 발령된 것이다.

이는 태풍 이전인 8월 23일과 태풍 이후인 9월 6일의 노무라입깃해파리의 출현빈도가 경남-경북-부산-울산에서 평균 1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의 해파리 출현빈도가 2009년 10월까지 출현과 것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 해파리 출현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은 해당 지자체와 수산업 관련기관에서 해파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산과학원의 해파리 일일 및 주간 보고를 참고해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더욱이 주의보가 발령된 해당 지자체는 노무라입깃해파리 집중감시와 어업 피해 상황 파악 및 피해방지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자료: 농어민신문 9.17〉